

문등

#S1-1. 공원 / 낮

Fade in

FLASHBACK

한 아이와 실랑이 중인 어린 수정.

수정: 나도 껴주면 안돼?

아이: 아 싫어~

수정: (아이의 팔을 잡으며 조르듯이) 나도 하고 싶단 말이야~

아이: (수정이를 밀치며 소리친다) 아 싫다니까!

수정은 바닥으로 넘어지며 놀란 얼굴로 올려다본다.

아이: 너희 아빠 이제 없다며, 너랑 안놀아.

수정: (울먹이며) 아니야... 나 아빠 있어...

아이: 거짓말 하지마. 너희 아빠가 너 버린거야

수정: 아니야... 아빠 있어... 아빠 있다구우...!

수정은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달려간다.

#S1-2. 수정의 집 (부엌~거실) / 낮

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할머니.

할머니는 문 여는 소리를 듣고 말한다.

할머니: 어 수정이 아가 왔어? 어여 손 씻고 와, 할머니가 밥 차려놨다.

수정이 울먹이며 할머니 앞으로 오고, 할머니는 그런 수정을 보고 놀란다.

할머니: (무릎을 꿇고 서서 수정이를 안으면서) 수정이 우니? 왜 울어! 누가 우리 아가 울렸어!

수정: (울면서 말이 잘 들리지 않게) 지아가... 나아 아 빠 없 다 고 했 으 어

할머니의 표정이 굳는다.

할머니는 계속 우는 수정을 괜찮다며 잠시 다독인다.

할머니: 괜찮아~ 괜찮아 수정이 괜찮다, 똑 어 그치

수정은 점차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는 그런 수정을 계속 다독여준다.

다독이다 말을 멈추고 말한다.

할머니: ...(엄한 목소리로) 수정아. 이제 친구들이 아빠 얘기하면 대꾸도 하지말고 무시혀.

수정은 할머니의 품에서 나오면서 의문을 가진 듯 묻는다.

수정: (입을 삐죽 내밀고 이해할 수 없는 얼굴로) 왜애? 나 아빠 있잖아~

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대답한다.

할머니: (수정을 외면하며) 너이 아빠 이제 집에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아빠 얘기 하(지 말 그라)

수정: (할머니의 말을 꿇고) 할머니 거짓말 하지마! 아빠 있잖아!

수정은 무언가 찾으려는 듯이 두리번거리다가 선반 위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가져와서 보여준다.

수정: (할머니에게 액자를 보여주며 큰 목소리로) 아빠가 없긴 왜 없어!! 여기 있잖아!!

할머니가 사진을 쥐고 가져가려고 하지만 버티는 수정.

할머니: 하이고... 수정아 그거 이리 내라.

수정: 할머니 왜 그래? 할머니 수정이 안사랑해? 할머니도 수정이 버릴거지!!

인상을 쓰며 액자를 책 빼앗는 할머니.

어린 수정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한다.

할머니: (무서운 표정, 위압적으로) 한번만 더 그 아빠 소리 하기만 해버라. 그땐 아주 혼
쫓을 내버릴테니까. 바보같이 굴지말고 똑바로 행동혀. 애비없는 자식이라고 너랑 느이
엄마 욱먹일 생각일랑 허지 말구.

할머니는 수정을 꾸짖고 들고 있던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는다

수정(소리): (잔뜩 심통이 난 목소리로)할머니 미워! 할머니랑 이제 말 안해!!!

쿵쿵거리는 수정의 발 소리와 할머니의 한숨소리.

FLASHBACK 끝

#S1-3. 수정의 집(수정의 방) / 밤

자신의 옛 추억이 담긴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 주변에 늘어놓은 수정.

그 중,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어올리면서 엄마와 통화한다.

(소리)수정: 어, 엄마. 어 ... 할머니? 별일 없었어. 어 ... 그냥 똑같아.

수정: ... 응. 오늘은 몇시에 오는데? 아... 알았어.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. 알았어. 응~
전화 끊는다.

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내리고 짧은 한숨을 뱉는 수정.

고개를 살짝 내려 사진을 쳐다보고 어릴 적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듯 잠깐 미소짓는다.

할머니(소리): 아가~ 달이 무지 크게 떴다아? 얼른 와서 소원빌어라잉~!

미소를 거두고 짜증섞인 한숨을 쉬며 눈알을 굴리는 수정.

사진을 내려놓고 짜증난 듯 펼쳐놓은 물건들을 상자에 도로 집어넣는다.

할머니(소리): 아가~ 뭐하냐? 빨리 나와봐라~

수정은 신경질적으로 바닥에서 일어나 문을 콧 닫고 나간다.

Focus out + 제목 '문등'

#S2. 수정의 집(베란다 앞) / 밤

베란다 조명을 보고 있는 할머니.

수정이 다가오자 고개를 돌리고 수정을 옆으로 잡아끈다.

할머니: (천진하게 웃으며) 우리 아가 왔어? 저기 저기 보이지? 봐봐

수정은 진절머리가 난 듯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고 한숨쉰다.

시야 끝에 있는 것은 밝게 빛나는 베란다 조명.

할머니(소리): 어여 소원 빌어라 소원!

수정(소리): 할머니... 저거 달 아니라고 했잖아. 나 지금 바빠.

할머니(소리): (수정을 무시하고) 우리 아가 그럼 아빠 올 때 통닭 사오게 해달라고 빌어 볼까?

수정은 아빠 얘기에 갑자기 화가 솟구친듯 할머니에게 붙잡힌 손을 뿌리치며 말한다.

수정: (할머니를 바라보며 짜증난) 몇번을 말해, 저거 조명이라고.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아빠 얘기를 해

수정은 더 할말이 있는 듯하다가 그냥 돌아서 방으로 가버린다.

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수정을 바라보는 할머니.

수정에게 뿌려쳐진 손을 매만지며,

할머니: 아가, 어디가야...~ 느이 아빠한테 통닭 사오라고 전화할까?

수정: (비꼬듯이 혼잣말로) 전화해보든가~ 전화번호 기억도 못하면서...

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는 수정을 바라보다가 다시 조명을 보며 미소짓는다.

그러다가 퍼뜩 무언가 궁금한 표정으로 혼잣말한다.

할머니: 스읍... 수정아빠 전화번호가 뭐였지...

#S3. 수정의 집 현관 / 새벽(오전 5시)

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린다.

지친 모습으로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수정의 엄마.

부엌으로 와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따라서 마신 후 지친 듯 의자에 털썩 앉는다.

엄마가 들어오는 소리에 깨 부스스한 상태로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수정.

엄마: 어 딸 미안, 엄마가 깨웠지?

수정: (눈을 비비며) 아니야, 밥 안먹었지? 내가 간단히 차려줄게.

수정은 싱크대로 가 전자레인지에 올려진 국의 가스레인지를 켜다.

엄마는 급하게 일어나서 그런 수정을 말리며 말한다.

엄마: 수정아, 엄마 진짜 괜찮아 괜찮다니까...

수정: (엄마를 다시 의자에 앉히며) 됐어, 앉아있어. 그냥 내가 해줄게

엄마: (의자에 앉혀지며 고마운 표정으로) 괜찮다니까...

식탁에 차례차례 수정인 올리는 음식이 보이고

엄마는 수저를 들면서 말한다.

엄마: 딸 고마워 잘 먹을게.

수정: 뭘...ㅎ

싱크대에 기대 서있는 수정.

밥을 먹는 엄마를 쳐다본다.

엄마가 밥을 먹고 있다가 수정에게 물어본다.

엄마: 오늘 뭐 별일 없었어?

수정의 아까 할머니와 다뤘던 일이 생각나지만 말하지 않는다.

수정: (괜히 싱크대를 문지르며) 그냥 평소랑 똑같지 뭐

엄마: 응... 엄마가 우리 달 덕분에 힘이 난다.

수정: 응...

엄마는 수정의 대답을 듣고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아 물어본다.

엄마: 오늘은 할머니랑 안 싸웠지?

수정: ...

엄마: 왜 또~ 무슨 일 있었어?

수정: ...엄마, 엄마는 아빠랑 왜 이혼했어?

엄마: 할머니가 오늘도 아빠 얘기했어?

괜히 시선을 돌리는 수정.

엄마: 음... 엄마도 수정이 나이 때 아빠가 집에 없었어.

수정은 처음 듣는 얘기인듯한 표정을 한다.

엄마: 할아버지가 엄마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... 엄마도 곁에 아빠가 없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항상 수정이 할머니한테 떼쓰고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우리 수정이는 말도 잘 듣고 의젓하게 잘 자라줘서 ... 고마워

엄마가 지금 이렇게 늙어보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 같아. 엄마도 솔직히 말하면 수정이를 엄마 혼자 이렇게 키우는 게 쉽지는 않거든. 할머니도 엄마가 힘들걸 알고 수정이 아빠를 안 좋게 생각했나봐.

수정: (여전히 의아한듯이) 그럼... 아빠가 엄마한테 뭐 잘못된 게 아냐? 그럼 왜 이혼한 건데?

엄마: 사정이 그랬던거지. 엄마는 지금도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연락도 가끔해~ 수정이도 지금까지 아빠랑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지 않아?

수정: ...응

엄마: ...엄마가 미안해. 수정이가 아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못보게해서

수정: 아니야... (혼잣말로) 나는 그냥 할머니가 나한테 그 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돼...

엄마: 할머니가 왜?

수정: 어? ... 아니야...~

수정은 베란다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.

#S4. 집 부엌 밤

수정은 냉장고를 확인하고 식탁위에서 리스트를 적으면서 전화하고 있다.

수정: 어, 우유 없어. 계란은 조금 있어서 나중에 사면 될 거 같아. 고기? 무슨 고기. 미역국? 아... 그러네. 갖고싶은거? 됐어. 미역국만 먹자. 알았어. 이것만 사오면 되지? 어~

전화를 끊고 리스트를 확인하는 수정.

(소리)할머니: 수정아~ 아가~이리 와보거라~

수정이 못들은 채 해도 계속 수정을 부르는 할머니.

수정은 고개를 들고 한숨쉰다.

할머니: 수정아~ 빨리 와바라, 달이 이상해. 달이 안뜨고 있어. 빨리 와바라.

수정은 현관으로 가며 말한다. (수정과 할머니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발화)

수정: (귀찮다는 듯이) 나 바빠. 마트 가야돼, 할머니 빨리 들어가서 자.

할머니: 수정아 빨리~ 아가~ 빨리 와보거라 너가 와야 할 거 같다 아가~

수정: (짜증난 듯) 아 달이 어떻게 안떠!

수정은 현관에 앉아서 신발을 신으며 나갈 준비를 한다.

수정: (짜증난 듯 큰 목소리로) 그리고 좀 시끄러워 다른 집에서 뭐라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!

순간 조용해진다.

수정은 너무 심했나 싶어 뒤돌아 할머니의 눈치를 보지만, 이내 여전히 짜증이 난듯 말하며 나간다.

수정: 나 마트 갔다 올 테니까. 빨리 들어가서 자!

문을 열고 나가버린다.

할머니는 상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중얼거린다.

할머니: 달이 안보이는디...

(시간경과)

수정은 마트를 다녀와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온다.

부엌으로 걸어와 짐을 두고 의자에 앉아 거실 쪽을 바라보고, 다시 베란다를 확인한다.

불이 꺼져있는 베란다.

불이 꺼져있는 것을 본 수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.

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엄마의 가방을 확인한다.

엄마가 어디갔지? 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고, 핸드폰에는 엄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다.

휴대폰 화면 insert

수정은 불안해져서 급하게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.

엄마(소리): (뛰고 있는 듯) 어 수정아. 너 어디야.

수정: 어? 나 집... 왜? 무슨 일 있어?

엄마: (숨을 가드듬으며) 집에 할머니 안계셔. 밖으로 나간 거 같아.

수정은 놀라서 할머니 방 쪽으로 간다.

수정: 어? 언제?

엄마(소리): 모르겠어. 엄마도 방금 집에 왔다가 너도 없고 할머니도 없길래. 찾으러 나온 거야. 할머니 어디 간다고 하셨어?

수정: (우물쭈물하며)...몰라. 모르겠어. 난 그냥 마트가려고 나왔는데...

엄마: 할머니 주무시는 거 확인 안했어?

수정은 다시 베란다로 가고 할머니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.

수정: 아니... 그냥 나 마트 가려고 나오는데... 할머니가 계속 뭐라 말하긴했는데...

엄마: 우선 수정아, 너도 빨리 밖으로 나와. 할머니부터 찾자.

수정: 알았어...

수정은 전화를 끊고 그대로 굳어서 서있다.

전구가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조명이 보인다.

이내 준비를 하고 나가는 수정.

#S5. 밤 거리 / 밤

할머니를 이미 오랫동안 찾고 있던 수정은 이제 지친다.

수정은 헉헉대며 거리를 뛰어다니다가 할머니를 영영 찾지 못할 거 같다는 불안감에 둘러싸여 주저앉아 좌절한다

수정: (숨을 가들다가 웅크리고 주저 앉아 울먹이며) 어떡ㅎ... 할머니...

웅크린 수정의 머리에 빛이 깜빡깜빡 반사된다. 골목길 집 앞에 있는 전구가 깜빡거리고 있다.

수정은 깜빡이는 전구를 올려다보고 울상인 표정을 짓는다.

깜빡거리고 있는 전구 insert

Flashback

어린 수정(소리): 할머니는 소원 뭐 빌었어? 나는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어.

아빠 오면 엄마랑 아빠랑 놀이공원도 갈거구 또...

할머니(소리): 쓰읍! 또 아빠 얘기!

현재 수정의 일그러진 얼굴 insert

수정(소리): 아아니... 그냥... 나는 아빠가 너무 보고싶어서...

할머니(소리):에휴... 이 불쌍한 것... 이리 와보거라, (안아주고 토닥토닥) 이 할미가 미

안해... 울지마 아가...

Flashback 끝

수정은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할머니를 찾기 위해 일어난다.

그때, 전화가 온다.

수정: 여보세요?

엄마(소리): 어 수정아! 할머니 찾았어?

수정: 아니... 아직, 엄마는 어디야...?

엄마(소리): 엄마도 아직 찾고 있는데...

수정: 어떡해... 할머니 어떡하지... 우리 이대로 할머니 못 찾는 거 아니야?

엄마(소리): 수정아, 울지마. 괜찮아. 우선 엄마가 경찰에 신고도 해놨으니까 할머니 찾을 수 있을 거야. 우선 넌 집에 들어가 있어. 응? 괜찮아

수정: 어... 알았어, 엄마는 지금 어

엄마(소리): 어? 엄마? 엄마!

수정: 엄마? 엄마 할머니 찾았어? 어디

전화가 끊긴다.

수정은 전화가 끊기고 엄마와 할머니를 찾기 위해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으며 빠른 걸음으로 나선다. 한블록을 건너 옆으로 틀었더니 저 멀리서 엄마와 할머니가 보인다.

둘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발을 옮긴다.

엄마: 엄마! 어디갔었어! 별일 없었어? 괜찮아?

할머니: (약간 울상인 얼굴로) 수정이... 우리 아가...

수정은 할머니에게서 자기 이름이 나오자 전에 모질게 굴었던 것이 기억나 멈칫한다.

엄마: 왜, 또 수정이랑 싸웠어? 괜찮아. 수정이가 괜찮대. 빨리 들어가자.

할머니는 엄마를 밀어내며 말한다.

할머니: (떼를 쓰듯) 아잇 이것좀 나봐라! 수정이 아빠 찾아야 한다. 우리 아가 소원 들어 줘야 되는데... 아무래도 그게 달이 아닌갑다, 내가 얼마나 빌었는데.

엄마: ...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. 괜찮아.

수정은 멈춰 서서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,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다.

엄마와 할머니는 집에 가기 시작하고 그런 엄마와 할머니를 수정은 바라보고 서있다.

엄마(소리): 엄마 괜찮아. 수정이도 다 알아.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의젓하고 똑똑한데.

할머니(소리): 암~ 똑똑하지 그럼 내 새끼데.

엄마(소리): 응, 빨리 집에 가자

#S6. 수정의 방 안 / 밤

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수정.

행복하고 애뜻한 표정으로 액자를 보고 있다.

사진을 보고 있다가 사진을 내려두고 서랍쪽으로 몸을 숙인다.

서랍을 열자 보이는 수정이 숨겨두었던 전구가 보인다.

전구를 꺼내 든 수정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.

수정은 방에서 나와 의자에 올라가 베란다 조명에 전구를 끼운다.

조명에 반짝 불이 들어온다.

의자에서 내려오고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빈다.